

2017 JUNE

KazNKS

카자흐스탄 한국학네트워크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

발행일: 2017.06.20



제 7 회 중앙아시아 한국학올림피아드

2017년 2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에 걸쳐 제 7회 중앙아시아 한국학올림피아드가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본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경시대회에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4개국 10개 도시 20개 대학에서 67명의 대학생이 참가하여 실력을 겨루었다. (관련기사 p.2)

카자흐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관련기사 pp.2-4)

제 4 회 중앙아시아 한국학
학술대회, 제 2 회 CIS 대학
(원)생 한국학학술대회, 한
-카 수교 25 주년 공공외교
세미나, GTE 아카데미 외

광성컬리지 / 동카자흐 국립대
(관련기사 p.5)

570 주년 한글날 기념행사,
제 7 회 한국학올림피아드
입상

탈디쿠르간 세종학당
(관련기사 p.6)

K-POP 댄스경연대회, 중급
반 수학여행, 설맞이 윷놀이
이대회, 한글날 기념 백일
장, 한국문화축제

카자흐 국립대
(관련기사 pp.7-8)

2017 카자흐스탄 동양학
올림피아드, 대학생학술대
회, 2017 한국학주간, 국제
공동학술대회, 최재형기념
사업회 후원 경시대회 외

* 이 뉴스레터는 중앙아시아 한국학네트워크 홈페이지 (<http://kaznks.kz>)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카자흐스탄 인명 지명은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Center for Korean Studies,
KazUIR&WL
Tole bi 84, Almaty, Kazakhstan
Homepage: <http://kaznks.kz>
E-mail: cks@ablaikhan.kz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제 7 회 중앙아시아 한국학올림피아드

2017년 2월 24일(금)부터 25일(토)까지 이틀에 걸쳐 제 7회 중앙아시아 한국학올림피아드가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본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경시대회는 어문학, 통번역, 한국어의 3개 부문에 알마티, 아스타나, 악토베, 탈디쿠르간, 크질오르다, 우스티카메노고르스크, 타라즈, 비슈케크, 타슈켄트, 노보시비르스크 등 4개국 10개 도시 20개 대학에서 67명의 대학생들이 참가하여 실력을 겨루었다. 경시 결과 무하멧칸 살타나트, 조 엘레나(이상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주누소바 바얀(유라시아 국립대)이 각각 어문학, 통번역, 한국어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제 4 회 중앙아시아 한국학학술대회

2016년 6월 24일(월)부터 25일(토)까지 2일간 중앙아시아 한국학학술대회 및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수협의회 정기총회가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개최되었다. 올해 4회째를 맞이한 이번 학술대회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한국의 4개국 21개 대학 및 기관에서 한국학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하였다. 본 대회는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수협의회에서 주최하고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에서 주관하였으며,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주알마티 총영사관, 알마티 한국교육원이 후원하였다.



제 2 회 CIS 대학(원)생 한국학학술대회

2016년 11월 26일(토)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는 동양학캠퍼스(Tole bi 84)에서 제 2회 CIS 대학(원)생 한국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학문후속세대 양성과 학술교류활성화를 통한 한국학 기반강화를 위해 기획된 이번 대회에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한국 등 4개국 10개 대학에서 학생 및 관계자 약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한편, 한국학센터는 한국학의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 올 11월부터 정기적인 학술대회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제 8 회 중앙아시아 성균한글백일장

2016년 11월 28일 제 8회 중앙아시아 성균한글백일장이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의 4개국 8개 도시 24개 대학에서 38명의 대학생들이 참가하였다. 심사결과 1등은 조 엘레나(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2등은 우스마노바 자미라(카자흐 국립대), 3등은 베이센베크코바 아이잔(키르기스-한국대학)이 차지했고, 특별상이 무하멧칸 살타나트(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에게 주어졌다.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제 9 회 중앙아시아 성균한글백일장

2017년 4월 22일(토) 제 9 회 중앙아시아 성균한글백일장이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의 4 개국 11 개 도시 24 개 대학에서 36 명의 대학생들이 참가하였다.

‘진정한 행복’을 주제로 진행된 백일장 결과, 1등은 미르조알리에프 후시누트(타지크 국립상업대), 2등은 이자트 아이다(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3등은 올란로자(카자흐 국립대)이 차지했다. 이들 수상자에게는 2년 동안 성균관대 대학원 등록금이 전액 면제되는 등 특전이 주어진다.

중앙아시아 성균한글백일장은 2009년 제 1 회 대회가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개최되었으며, 이후 제 2 회 대회부터 제 7 회 대회까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개최되었다. 제 8 회 대회부터 다시 카자흐스탄 알마티로 장소를 옮겨 대회가 진행되고 있으며, 명실상부한 중앙아시아 최대의 한국어경시대회로 자리잡았다.

KF 한국전공대학원생펠로십

2017년 1월 11일 주알마티 대한민국총영사관에서 카자흐 국립대 한국학과 대학원생 5명(석사 4명, 박사 1명)과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학과 대학원생 4명(석사 3명, 박사 1명)에게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전공대학원생펠로십 장학금 전달식이 진행되었다.

이 외에도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는 2016-2017학년도에 신한은행 장학생 6명, 한국학중앙연구원 대학원장학생 6명, R/A 장학생 4명, 카자흐스탄 중소기업연합회 장학생 4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570 돌 한글날기념 한국학포럼

2016년 10월 7일(금)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는 570 돌 한글날과 한국학센터 개원 4주년을 기념하여 한국학포럼을 개최하였다.

한국학 교원 및 학생 12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우시케노프 학장(동양학부)의 인사말과 이석운 부총영사(주알마티 총영사관)의 축사로 시작되었다. 한글날을 기념하여 동영상 “한국문화 최고의 창작품 한글”을 감상한 후, 한넬리 학과장(한국학과)의 발표가 이어졌다.

“중앙아시아 한국학 발전을 위한 한국학센터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진행된 발표에서 한국학센터를 개설하여 지난 4년간 진행해온 한국학 사업의 성과를 소개하였다. 한국학센터는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해외한국학 씨앗형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15년에는 중앙아시아에서 최초로 해외중핵대학사업에 선정되어 학술지와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학술대회와 경시대회를 개최하는 등 중앙아시아 한국학 진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Global Triangle Education 아카데미

2017년 1월 16일(월)부터 2월 10일(금)까지 4주 동안 부산외대 러시아중앙아시아학부와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가 공동으로 GTE(Global Triangle Education) 아카데미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번 사업은 대한민국 교육부가 지원하는 CORE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되었으며, 지역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부산외대-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현지기업 3자 간에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다.

강상엽 관장(KOTRA 알마티무역관), 이교종 차장(신한은행 카자흐스탄법인)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 관계자들이 지역전문가 양성을 위해 한국-카자흐스탄 경제협력 현황과 전망, 현지의 기업실무요령, 카자흐스탄의 기업 환경 등 경제와 관련한 특강을 맡아 주었다. 또한 한국학 교원들이 정치, 사회, 역사, 문화, 언어 분야의 특강을 통해 학생들에게 지역학으로서의 카자흐스탄의 특수성을 소개하였다.

학생들은 또한 엑스포 준비상황을 견학하기 위해 아스타나를 방문하고,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현황을 체험하기 위해 LG 전자(법인장 전영재) 공장과 Autogas Almaty(대표 김상수)를 방문하는 등 다양한 견학프로그램을 통해 현장학습의 성과를 높일 수 있었다.



한-카 수교 25주년 공공외교세미나

2017년 5월 5일(금)부터 6일(토)까지 2일간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대사관이 주최한 “2017 한국-카자흐스탄 공공외교세미나”가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에서 개최되었다.

올해 공공외교세미나는 한-카 수교 25주년 및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을 맞아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어 및 한국학을 강의하는 교원, 대학원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의 정책 및 주요 외교 사안의 홍보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상호 이미지 제고가 가능한 이슈를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알마티, 아스타나, 우스티카메노고르스크, 크질오르다, 탈디쿠르간, 타라즈, 침켄트, 악토베 등 8개 도시 20개 대학 및 기관의 교원 50명, 대학원생 및 대학생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전승민 주알마티 총영사 초청강연

전승민 주알마티 총영사 초청강연 2017년 4월 7일(금)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동양학부 대강의실에서 전승민 총영사(주알마티 총영사관) 초청강연이 개최되었다.

전 총영사는 “세계로 미래로 - 외교관으로서의 삶”을 주제로 주재했던 나라들의 경제, 문화, 생활과 주제 중에 활동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30여 년의 외교관 경험에 대하여 강의하였다. 약 150명의 한국학과 교원과 학생들이 참석한 이번 강연은 청중들의 큰 호응 속에 진행되었다.



광성 컬리지 / 동카자흐 국립대

570주년 한글날 기념행사

2016년 10월 한글창제 570주년을 맞아 동카자흐스탄 다민족회관에서 광성 컬리지 주최로 한글날 기념행사가 개최되었다. 한글은 문자의 창제자와 목적, 그 시기가 기록되어 있는 세계 유일의 문자로, 1997년에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선정되었을 정도로 세계적인 가치를 평가되고 있다. 이에 동카자흐스탄 지역 내 한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그 가치를 공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행사를 주최하게 되었다. 기념행사는 생활 한국어 배우기, 한글 퀴즈왕 선발, K-POP 공연, 풍물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로 채워졌다. 특히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게 된 배경에 대해 연극을 선보여서 볼거리를 더했다. 그리고 행사의 마지막에는 고려아리랑을 합창하면서 카자흐스탄에 있는 우리 민족 고려인의 위상을 높였다. 행사에 참여한 김 폴리나(21세)는 “이번 행사를 통해 한글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한국어를 공부한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며, 앞으로 한국어를 더욱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동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제 7회 한국학올림피아드 입상

2017년 2월 알마티 소재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에서 개최된 제 7회 중앙아시아 한국학올림피아드에서 동카자흐 국립대 몰두바예바 다나(3학년)가 한국어 부문에서 3위를 차지하였다.



탈디쿠르간 세종학당

K-POP 댄스경연대회

2017년 5월 20일 탈디쿠르간 학생회관에서 K-POP 댄스경연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경연에는 예선을 거친 15개 팀이 참가하여 열띤 경쟁을 펼쳤다.



중급반 수학여행

2017년 5월 8일 탈디쿠르간 세종학당 중급반 학생들이 차른 계곡으로 수학여행을 다녀 왔다. 이번 여행은 중급반 학생들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여행을 통해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설맞이 윷놀이대회

2017년 2월 17일 탈디쿠르간 세종학당에서 설맞이 윷놀이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대회는 설날을 맞이하여 세종학당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국의 전통놀이인 윷놀이를 소개하고 체험함으로써 한국의 놀이문화를 알리기 위해 기획되었다.



한글날 기념 백일장

2016년 10월 8일 아이수 유원지에서 한글날 기념 백일장이 개최되었다. 한글날을 기념하여 세종학당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백일장을 열어 한국어로 시, 수필, 삼행시 쓰기 대회를 실시하였다.



한국문화축제

2016년 6월 1일 우슈토베 도스티제니에 학교에서 한국문화축제가 열렸다. 축제를 통해 고려인 초기 정착 마을에서 한국의 음식문화, 놀이문화, 의복문화를 소개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국문화를 알렸다.



카자흐 국립대

국제공동학술대회

2016년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 동안 카자흐 국립대 동방학부에서 “중아시아의 한국학과 한국의 디지털인문학”이라는 주제로 국제공동학술회의가 개최되었다. 카자흐 국립대와 한국외대 양측은 2017년에도 학술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향후 양교 협력과 학술교류에 크게 기여해 나갈 것으로 여겨진다.



해외학자초청 특강

카자흐 국립대 한국학과는 2016년 12월 해외학자초청 특강을 실시하였다. 12월 6일부터 19일까지 안영미 교수(인천대)가 한국어교수법, 12월 23일부터 30일까지 안상경 교수(충북대)가 문학과 전통에 대하여 강의하였다. 한국어 교원을 대상으로 한 특강은 유익하고 생생한 정보가 많이 전달되었고, 자격향상과 정보교류의 장이 되었다.



장학금 수여식

2016년 8월 31일 카자흐 국립대에서 산학협동재단 장학금수여식이 진행되었다. 한국학과 재학생 3명이 각 1천불씩 장학금을 받았다. 산학협동재단의 장학금지원에 대해 지속되고 있다.

10월 17일 카자흐 국립대에서 포스코 장학금수여식이 진행되었다. 본 행사에서 5명의 한국학과 재학생들이 장학금을 지원 받았다.

11월 28일, 카자흐 국립대에서 신한은행 장학금수여식이 진행되었다. 신한은행은 이미 수년째 한국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본 행사에서 총 6명의 한국학과 재학생들이 장학금을 지원 받았다.



최재형기념사업회 후원 경시대회

2016년 11월 27일, 서울 소재 최재형기념사업회 후원으로 카자흐국립대 한국학과에서 한국어 글짓기-말하기 경시대회가 개최되었다. 본 행사는 항일독립운동가 최재형의 숭고한 뜻을 알리고 경시대회를 통해 학생들의 한국어와 한국학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최재형기념사업회는 매해 경시대회에 지원을 하고 있으며, 차후 장학금 지원도 약속하고 있다.



주얼마티 총영사 특강

2016년 9월 22일 카자흐 국립대 한국학과에서 전승민 총영사(주얼마티 총영사관)의 특강이 개최되었다. “카자흐스탄 – 유라시아의 중심”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특강에서 전승민 총영사는 중아시아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참가한 학생 및 교원들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카자흐 국립대

2017 카자흐스탄 동양학올림피아드

2017년 3월 29일부터 30일까지 카자흐 국립대 동방학부에서 카자흐스탄 동양학올림피아드가 개최되었다. 본 행사 참가자들은 그 동안 쌓아 온 역사와 언어의 한국학 분야 지식을 유감없이 발휘했고, 입상자들에게는 푸짐한 상금과 상품이 지급되었다. 한국학올림피아드는 명실공히 카자흐스탄 최고의 지식겨룸의 장이며, 한국학도에게는 한국학에 대한 관심과 의욕을 제고시켜주는 최고의 축제 자리매김되어 가고 있다.



2017 한국학주간

2017년 3월 13일부터 17일까지 카자흐 국립대 한국학과에서 “한국학주간” 행사가 진행되었다. 본 행사는 정기적인 연례행사로 “한국의 문화/역사 퀴즈대회”, “한국영화의 날”, “한국음식문화 체험의 날” 등의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고, 마지막 날에는 “대사와의 만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승민 주알마티 한국총영사와의 만남을 갖는 것으로 한 주일 동안의 한국학주간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대학생학술대회

2017년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카자흐 국립대에서 대학생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본 대회에 동방학부 한국학과 학생들 및 외국인 학생들이 참가했으며, 서로 간의 우정과 화합, 지식 교류의 시간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김영식 교수 한국학특강

2017년 4월 24일 카자흐 국립대 한국학과에서 강릉원주대 김영식 교수의 특강이 진행되었다. “동북아시아의 정치와 경제”라는 주제로 진행된 특강에서 학생들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정치와 경제 상황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되는 기회를 가졌다.



의료재단 청연 의료특강

2017년 4월 26일 카자흐 국립대 한국학과에서 지난 해에 이어 두 번째로 의료재단 청연과 함께하는 뜻깊은 의료특강행사가 개최되었다. 특강은 지난 해와 조금 달리, 동방의학 용어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학생들은 의학분야에 대한 새로운 표현을 접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만남을 통해 의료재단 청연의 카자흐스탄 진출 시 상호인력지원과 협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